

월요광장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개발연구실장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는 유명관광지가 많아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다 위에 도시를 세우고 아름답게 꾸민 베니스도 좋지만, 접근성이 높고 교황청(Vatican)이 있는 수도 로마는 대표적인 이탈리아 관광지이다.

웅대한 건축물이나 미술품 등 각종 유적은 ‘관광지 로마’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남게 한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할 때 로마를 맨 나중에 관광하라고 한다. 유럽 관광객의 대부분이 로마문명의 야류(亞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일반시민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민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재판경험이 전무한 사람일수록 법적인 분쟁이 자신의 문제가 돼 법정에서 세계 되는 경우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기대는 민사소송의 특성인 변론주의와 입증책임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때로는 재판결과를 놓고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인들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특성과 차이를 알지 못해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반시민들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양 당사자가 모두 아는 사실을 관사만 모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민사재판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는 방법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 2000년도 더 지난 로마제국의 유적을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고대국가 로마(BC753-AD476)는 로마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발생하여,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하였다. 로마제국은 군사력, 종교, 법률로 세계를 세 번이나 지배했다고 하는데, 그 만큼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고 깊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성문법에 근거한 사법체계나 지방자치체계도 로마제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2월이 짝고, 7월과 8월이 길며 달의(영어)이름도 이상한 태양력도 로마제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국 이탈리아는 물론 북아프리카와 유럽에 산재한 유적은 로마제국이 1000년 이상 변형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다. 특히 여러 도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던 장대한 ‘수로’나, 2000년이 지난 현재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로마가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해진다.

귀족계층만 아니라 평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체제를 세심하게 구축

한 ‘로마인’이 존경스러워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로마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로마제국 5천제의 한 명인 하드리아누스(Hadrianus, 117~38년 재위) 황제가 있다. 로마제국의 유적을 따라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이다. 하드리아누스 신전, 하드리아누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문(門) 등이 각지에 있는데, 황제가 직접 현장에서 건축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것이다.

이 가운데 유네스코가 1987년 세계유산 유적으로 선정한 하드리아누스 성벽(Hadrian's Wall)이 있다. 서기 12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자주 출몰하던 아란쪽으로 부터 방어를 위해 현장에 직접 가서 성벽 건축을 지시했다.

8년에 걸쳐 건설된 성벽은 현재 영국의 뉴캐슬에서 솔웨이만까지 동서로 약 117.5km에 걸쳐 있다. 이 방어벽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당시 로마제국의 최서단(最西端) 국경선이 되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다른 황제들과 달리 인기 있는 정복 활동과 개선식보다 각 속주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제국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재위 기간의 대부

분을 보낸다.

수도 로마에서 화려한 행사나 정치활동을 최소화하고, 국경선을 돌아다니며 군인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황제로서의 직분을 다했던 것이다. 그 결과 로마제국은 상당기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어느 기업(조직)이나 사회, 국가에는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피되지만 잘 수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그 사회(조직)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일의 성격상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런 일들이 잘 수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구성원의 일에 대한 태도와 조직 문화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주어 진 일을 소명(calling)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조직(기업)과 국가는 융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에서 잠시 벗어난 휴가지에서 직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에 대한 태도와 문화’를 차분하게 재점검하는 것도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변론주의와 입증책임 그리고 사법신뢰

고 있다는 정황 중의 하나일 것이다.(하지만 민사재판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양 당사자가 모두 아는 사실을 재판장이 관사만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제3자인 관사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지 상태에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해야 하고 양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소송자료를 토대로 관사의 자유심증으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사실과 증거 등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은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스스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 수집에 만전을 기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시민으로서 권리 위에 잡자는 자는 구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와 금융자료나 관련 증인들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의 제도상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결이지만, 실제적 진실과는 명백히 다른 판결이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체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돈을 빌려 준 것이 사실이지만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나 반대로 돈을 빌리고 이

를 모두 변제했다라도 빌린 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구체적 재판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지 않은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니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증책임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패소부담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입증책임제도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과 기억능력이나 당사자의 입증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진위불명(眞僞不明)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마냥 재판의 진행을 연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위불명상태에서도 판결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교육책임기 때문이다.

또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이 평등한 쌍방당사자의 대립에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통상적이다. 특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당사자 스스로 소송수행을 하는 본인소송의 경우에는 충분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부터 실제 현실에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관해 법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변론주의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면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 부족으로 승소할 사안

임에도 패소를 당하는 폐단과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평가가 싹트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이 아무리 중요한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변론주의도 기계적·형식적 관철보다는 보완과 수정논의가 필요하고, 입증책임도 진위불명에 대한 재판 불가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법부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민사재판절차에서도 소송의 스포츠화를 막고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표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인식의 괴리를 좁히고 판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제도의 사각지대에 일반시민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의 범위에 기대어 쉽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충실한 소송절차의 안내, 소송구조제도의 활용을 통한 본인소송의 보완, 적절한 석명권의 행사, 입증촉구 등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전혀 예측 불가능한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재판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가들 전체가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규명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기고



김일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광주은행장 선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광주은행 내부 경영공백은 물론 매각을 앞두고 기업가치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10일 송기진 행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정부의 분리매각 방침이 공식 발표되면서 차기 은행장 선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지만, 2개월 가까이 행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광주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서류 심사를 통해 12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후보로 압축한 뒤 우리금융지주 경영전략회의가 열린 지난 7월 27일 전에 행장후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또한 빛나가고 말았다.

이 지역 중추적인 금융기관인 광주은행 CEO선임의 표류는 지역경제에도 불리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은행장 조속히 선임돼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지역상권 및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추석 명절 자금지원을 독려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행장 선임의 지연으로 금융지원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 이 앞선다. 또한 광주은행은 영일 및 인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하고 있으나 8월이 다 된 지금까지 인사 및 하반기 경영전략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은행은 CEO 공백 상태에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15일 광주은행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절차에 착수 했으며 오는 9월 23일 까지 예비 입찰 서류를 받아 11월 본입찰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이면 새 주인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3대원칙으로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금융산업발전에 의한 민영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민영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안정과 기업가치의 제고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금융그룹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순우 회장을 선임한 배경 설명에서 조속한 민영화를 우선과제로 정하고 조직장악력이 높은 이순우 회장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CEO 선임도 민영화 3대원칙에 가장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회수극대화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최고가 매각원칙을 고수하지만 줄기차게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 우선협상권에 대해 난감한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설득할 수 있는 인성이 두터운 CEO를 선임해야 한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조직과 지역을 아우른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내부조직과 지역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축적된 신뢰와 인적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는 내부출신 CEO가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위기의 정치국면 ‘DJ정신’으로 극복하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이 부인 이회호 여사와 유족을 비롯해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광주·전남 곳곳에서도 17~18일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추도식과 추모행사가 열렸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생 가치발길을 걸었던 김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여러 과제를 남겼다. 그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고 노력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민족 화해, 동서화합,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서민복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DJ 정신’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DJ 정신’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서 비롯된 여야의 극한 대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민주격차와 사회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는 지난 6월 말부

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켜지고,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물타기’로 정국이 더욱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홍관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는 물론 범죄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며 청문회를 농락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정치질서를 짓밟는 오만한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실타태처럼 얽힌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 영수등, 3차회담등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정국 대치가 계속되는 건 결국 국민을 희생하는 일이다.

유증처럼 혼란의 상황에 ‘DJ 정신’이 절실할 때가 없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도전을 통합과 화해, 화합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중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외면해서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도도 비교적 저렴한데다 사망과 재산피해에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 업주들이 ‘소말대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화재위험은 항상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관찰했지”하는 관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아까는 재산이나 소중

한 사업장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난 뒤에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일 아닌가. 다중시설 업주들은 지금이라도 다중 화재책임보험을 서둘러 가입해 피해 유증을 줄여야 한다. 소방방재청도 소방관들을 동원해 실적쌓기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까지 불과 4일도 남지 않았는데 업주들이 가입에 소극적인 것은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과 보상 범위가 다를 때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다 법 시행일에 가깝게 가입하면 보상 기간도 길다는 판단 때문이다. 손님의 안전보다는 ‘이득’을 따지는

알파한 속셈에 다름이 아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도도 비교적 저렴한데다 사망과 재산피해에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 업주들이 ‘소말대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화재위험은 항상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관찰했지”하는 관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아까는 재산이나 소중

한 사업장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난 뒤에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일 아닌가. 다중시설 업주들은 지금이라도 다중 화재책임보험을 서둘러 가입해 피해 유증을 줄여야 한다. 소방방재청도 소방관들을 동원해 실적쌓기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無 等 鼓

며칠 전 여름 휴가차 경주를 찾았 수 하여온 온 아이들과 불국사와 석굴암, 남산 등 유적지를 둘러봤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천년 신라의 숨결이 배어있는 석굴암 본존불이나 절성대가 아니라 국립 경주박물관 내 미술관 2층 계단에 자리하고 있는 반쯤 부서진 돌 유물이었다. 시선을 사로잡은 유물은 바로 오른 발을 왼쪽 무릎에 올리고(半跏) 생각

정된 금동 반가사유상은 백미(白髹)다. 특히 일본 교토 고류지(高雄寺)에 소장된 목조 반가사유상은 한반도에서 많이 자라는 적송(赤松)을 통나무째 깎아 만든데다 국보 83호와 세부형식 등이 유사한 점성대가 아니라 국립 경주박물관 내 미술관 2층 계단에 자리하고 있는 반쯤 부서진 돌 유물이었다. 시선을 사로잡은 유물은 바로 오른 발을 왼쪽 무릎

에 올리고(半跏) 생각에 잠겨 있는(思惟) ‘반가사유상’이었다.

아쉽게도 머리와 어깨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1.25m 길이의 하반신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기울어가는 오후 햇살에 드러나는 하반신 조각의 음영 속에서 ‘생각하는 부처’ 형상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어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반가사유상은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 왕자였을 때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깊이 사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륵신앙이 크게 유행했던 삼국시대 6~7세기 무렵 집중적으로 조성됐다. 그 가운데서도 국보 78호와 국보 83호로 각각 지

을 초월해서 이뤄낸 인간 존재의 가장 맑고, 원만하고, 영원한 모습의 표상’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국의 반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국보 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미국 뉴욕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에서 오는 10월 말 전시된다는 소식이다.

가수 사이의 ‘감남 스타일’ 등 한류 전 왕자였을 때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깊이 사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륵신앙이 크게 유행했던 삼국시대 6~7세기 무렵 집중적으로 조성됐다. 그 가운데서도 국보 78호와 국보 83호로 각각 지



뉴욕의 반가사유상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0-0195)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지털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